

MC : FM90.7MH 경인방송의 아침 시사 정보프로그램 상쾌한아침 원기범입니다. 수요일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정중계탑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은 구재용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구 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네 반갑습니다.

MC : 반갑습니다. 후반기 운영위원장에 선임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의원 : 네 고맙습니다.

MC : 소감이 어떠십니까?

의원 : 네 소감이라기보다 올 7월1일부로 제가 운영위원장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6대 제2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해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위원장의 직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원활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회 열린의회 책임의회를 펼쳐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C : 정책의회 열린의회 책임의회 어느 것 하나도 빼 놓을 수가 없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후반기 운영위원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가요?

의원 : 의회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안건 심사를 잘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확보하고 또 제공해야 하고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의 조정도 필요합니다. 또한 의원들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의정활동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는 일이 없도록 의원상호간 의견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MC :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척 많네요?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또 하나 자료 확보도 운영위원회에서 해줘야 돼요?

의원 : 조절역할인데요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료가 요구를 해보면 부실하다

MC : 제대로 제출이 안되는 군요?

의원 : 그렇죠? 웬지 시정부 쪽에서는 숨기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요?

MC : 그럴것죠?

의원 : 자료보완에 있어서 충실할 수 있도록 애기하고 있습니다.

MC : 시 행정부에서는 운영위원장을 제일 무서워하겠군요?

의원 : 그렇진 않습니다.

MC : 어떠세요? 재직하시는 동안 이거는 실천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의원 : 네 첫째는 우리 인천시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동시에 현장 위주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의회청사 시설물 일부를 각종 회의 문화행사의 장소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새로 구축된 의회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MC : 네 저희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다룬 기억이 나는데 의회차원에서 의원 보좌관제를 추진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보조관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조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인천시의 재정여건으로 실시가 안됐는데 이렇게 돕는 인력이 필요하다 이걸 의회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죠?

의원 :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시.도에서 의원 보좌관제를 추진하다가 난항을 겪고

있죠? 현재 행안부는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MC : 시의회차원에서 조례만 제정해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죠?

의원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전문성 즉 지방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전문성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바로 보좌관제도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결국 처리하지 못했죠? 그런데 지방의원 보좌관제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지방의원과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물고를 틀 계획입니다.

MC : 인천시 어제 송영길 시장과 인터뷰 했습니다만 288만 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구요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삼십여 명밖에 안 되죠?

의원 : 정확하게 37분이죠?

MC : 그렇죠? 한 사람당 말아야 하는 인구비례로 다 따질 수 없겠지만 그러다보니까 도와주는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애근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애근데 전문 인력확충은 의회차원에서 가능합니까?

의원 : 의회 자체에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구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구와 정원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임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보좌를 강화하기 위해서 별정 4급의 수석전문위원과 직원 전문 보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업무가 복잡해지고 행정업무와 예산 정책 등을 좀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부족한 게 사실이죠?

MC : 그러게 말이에요 전문위원 확충을 위한 방안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구재용위원장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지금 동구에 있는 박문여중.고가 송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의 입장은 송도이전 반대하신다는 얘기죠? 결의안을 내셨죠? 그렇게 근데 교육청에서는 내부적으로는 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 시교육청은 입법예고를 한 것을 보면 이전해 주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한 거 같습니다. 근데 사립학교 이전 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해당 학교의 이전 의사이고 이전하려는 곳의 수용계획 등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문여중.고의 경우 사립학교로 이미 이전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로 인해 원도심 구도심이라고도하죠? 상권 등 지역주민의 삶과 매우 직결돼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문여중.고 이전 결정시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수렴해야 하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활용 방안 이전 결정 이런 여러 가지의 계획이 적극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C : 향후 5년 이내에는 이전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써주고 교육청의 예산도 지원받았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도 좀 따져 보셔야 되는 거 아니 예요?

의원 : 오늘 저희가 10시에 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박문여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의견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인천시교육청의 현안 중에서 뜨거운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MC : 위원장님 지역구가 서구 제2선거구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서구가 현안이 참 많은 곳 아닙니까? 지역구 현안 중에 가장 풀어야 될 문제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 : 네 면적으로 보서는 인천에서 서구가 가장 크죠? 또 서구가 인천시의 사업 가운데 국.시책사업이 약 50%에 해당될 만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먼저 해결해야 될 사업이 첫 번째는 루원시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여기에 대한 서구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팽배합니다.

MC : 거긴 밤에는 못 다니겠어요?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거의 공동화

의원 : 무법천지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완전히 슬럼가가 되었죠?

MC : 그렇습니다. 전부 공가가 돼가지고

의원 : 아직까지 철거도 다 되었지 않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루원시티사업, 두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최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준법 감시를 시작하면서 쓰레기 대란이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이렇게 쓰는데 쓰레기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문제 조속한 해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 한다면 서구 주경기장이 제 지역구인 연희동에서 약 20만평으로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MC : 지금 한창 공사중이죠?

의원 : 네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서구 주경기장을 왜 짓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시민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런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다가오는 2014아시안게임을 잘 치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함께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제 지역구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C : 주경기장 문제 그렇다고 쳐도 루원시티나 수도권매립지 둘 다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방향이라도 정해져야 될 텐데 문제입니다.

의원 : 우리 인천시의 기본적인 방향은 당초 3개 시도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2016년까지 매립을 종료하는 것으로

MC : 수도권매립지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부나 시의회나 수도권매립지는 3개 시도가 당초 합의한대로 2016년도에 매립을 종료해야 된다 라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골프장문제 뭐 당연히 인천시민들한테 또 서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최근에 와서 환경부가 민간에다가 넘기겠다는 것은

MC : 위탁경영은 안된다 얘기죠?

의원 : 네 문제가 있죠?

MC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의회의 역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의원 : 네 그렇습니다.

MC : 또 운영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나아가실 건지 인천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맺겠습니다.

의원 : 네 우리 인천시 정부가 시민을 위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들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각 지역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문을 열어놓고 적극적이고 살아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고 시민들에게 받은 소중한 권리를 시민과 함께 행사할 때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 네 그 일을 위해서 또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 : 네 감사합니다.

MC : 인천의정중계탑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구재용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